

예술 꿈나무들, 더 큰 꿈을 향해 마음 다집니다

‘제6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전국 6000여명 학생 경연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수원하나중·광주예고...21명 개인 수상
김여송 사장 “코로나로 예술활동 힘들었을 것...어려운 일 해내”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65회 호남예술제’가 최고상 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6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이 지난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열렸다. 당초 시상식과 최고상 발표회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올해 발표회는 취소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호남신학대 등지에서 열린 올해 경연은 음악·무용·미술·작문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6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만화애니메이션·합창·합주 부문 경연은 열리지 않았으며, 미술·작문 부문은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또,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학부모의 동행이 금지되는 등 변수도 많았지만 꼬마 예술가들은 저마다 기량을 뽐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경연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열린 호남예술제는 예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해 보다는 참가팀이 다소 감소했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아 온 재능을 증명이라도 하듯 열정으로 가득 찬 경연이었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의 열정과 기량은 코로나 19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종합 최고상을 받은 광주송원초등학교, 수원하나중학교, 광주예고등학교를 포함해 단체최고상을 수상한 서정원 외 7명(중창)과 이지현 외 3명(협야 중주) 그리고 21명의 개인 수상자들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장

전달됐으며, 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와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과 기립촬영이 이어졌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시상식에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연을 비롯한 문화예술활동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전국 6000여명의 학생 중 최고상 수상자로 선정된 21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전통의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이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경우가 많다”며 예술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광주일보사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1956년부터 개최해 온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60여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광주·전남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이름을 알렸다.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자리잡았으며, 젊은 예술인들의 경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기량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부문에서는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입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이 대표적이며, 무용 부문에서는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한국발레계의 대모’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뉴욕에서 ‘WHITEWAVE-김영순 댄스 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영순 등도 눈에 띈다.

교육자로는 강숙자·정애련·박계·조수현·김애경·김진숙·김혜경·서영화·박준희·서차영·김화래·김화숙·김미숙·임지형·박준희·정희자·박선욱 등 전현직 교수들이 대표적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에서 김여송 사장과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노래할 때 가장 행복... 음반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 전하고 싶어요”

성악부문 5년 연속 최고상 이호준 군

호남예술제에서 5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이 있어 화제다. 바로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5학년 이호준(사진) 군이 그 주인공이다. 이군은 2016년 1학년 때 호남예술제 성악 부문에 참가해 최고상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 28일 시상식장에서 만난 이군은 “5년 연속 최고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며 “도와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누나를 따라 음악학원에 놀러갔다 공부를 시작했지요.



노래를 통해 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내년에도 최고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습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꽃밭에서’, ‘바닷가에서’, ‘별’, ‘어느 봄 날’ 등을 부른 이군은 이번 대회에서 ‘그리운 언덕’을 불렀다. 그는 “옛 동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잘 맞는 것 같아 경연곡으로 정했다”며 “좋아하는 노래지만 감정표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군은 파랑새창작동요제, 희망창작동요제, CJ

헬로비전 가장 어린이 동요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다.

“곧 변성기가 올텐데 잘 넘겨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요. 노래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지치기도 해요. 그래도 노래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학교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할 때가 더 좋습니다.”

이군의 목표는 음반을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 음반으로 만들고 싶어요. 음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5회 동주문학상’ 시상식...본상 김룡·강주 시인

광주일보·시산맥 공동 주최, 수상자·회원 등 40여명 참석
해외작가상 한혜영·특별상 손용상·해외신인상 김소희 수상

광주일보(사장 김여송)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5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8일 오후 5시 서울시 종로구 파노라마에서 수상자와 가족, 시산맥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수상자와 문학상 관계자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예년과 달리 식전행사, 축하, 내빈 소개 등을 생략한 채 시상식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먼저 동주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김룡 시인과 강주 시인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당초 본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이 수여되지만 올해는 공동 수상자로 선정돼, 500만원씩 지급됐다.

또한 동주해외작가상 수상자 한혜영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손용상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동주해외신인상 김소

희 시인에게 상패가 주어졌다.

동주문학상 시상식에 앞서 계간 시산맥이 주관한 제1회 촌철살인 시 우수작품상 수상자인 이영식·최연수·양현주·김정현·정하해 시인에 대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됐으며, 제10회 시산맥작품상 수상자인 오늘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아울러 제15회 최지원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성원 시인에 대한 단단대 증정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차세종(중앙대 2학년) 군에게 장학금 50만원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부 제10회 시산맥작품상	오늘	2부 제5회 동주문학상	김룡 강주
제15회 시산맥신인문학상	한상진	제5회 동주해외작가상	한혜영
제15회 최지원신인문학상	정성원	제5회 동주해외작가특별상	손용상
제1회 촌철살인 우수상	이영식 정하해 최연수 양현주 김정현	제1회 동주해외신인상	김소희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인귀 시인, 오태환 시인, 김시연(김소희 시인 대리수상) 씨, 강주 시인, 한혜영 시인, 김룡 시인, 이도훈(손용상 시인 대리수상) 씨, 박성천 광주일보 문화부 기자, 문정영 시산맥 대표.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